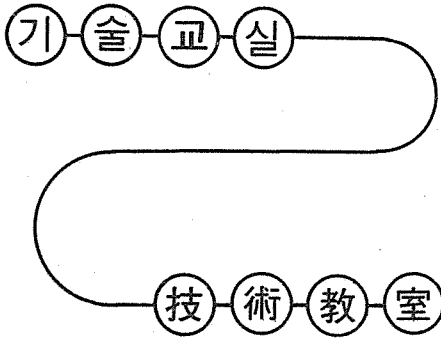


봄배추 主要品種과 播種時期

地 域	재배방법	파 종 시 기	品 種
中 部 (水原基準)	육 묘	3月25日~30日	耐暑白露(홍농) 統一四季(제일)
	직 파	4月1日~5日	유 쌍(제일) 高冷地 早生 여름배추(고농)
高 冷 地	육 묘	5月25日~30日	여름 大型가락(중앙)
	직 파	6月10日頃	春秋三號(중원) 금강만춘(서울)

() : 생산 종묘 회사명 원예시험장 제공



봄배추의 품종과 파종적기

봄의 저온기에 재배하는 춘파재배에는 몇가지 재배상의 문제점이 있다. 즉 생육 초기에는 저온에 의해 추대하기 쉽고 후기에는 고온다습한 생육환경으로 생육장애와 병해가 일어나기 쉽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엽이 8~10매 전개 할 때까지는 15~20℃의 온상에서 육묘하여 외온이 10℃이상 올라간 다음에 포장에 정식한다. 정식후 기온이 낮을때는 소형턴널을 씌워 약간 보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배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것은 춘파재배에 있어서 생태적 특성을 지닌 품종의 선택과 적기에 파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춘파재배에 있어서는 그 파종적기의 폭이 좁으므로 파종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봄배추 품종으로서 원예시험장에서 추천하는 우수품종과 파종적기는 표와 같다.

봄배추는 만추대성 품종으로서 초기의 저온에도 쉽게 추대하지않고 본엽 8~10매 이상 전개되면 결구에 충분한 엽수가 확보되므로 정식 후 저온에 의해 분화되어도 미숙한 상태로 추대하는 일은 거의없다. 봄배추 품종은 대체적으로 생육일수가 짧운데 만생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확기가 고온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병에 발생이 심하여 수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되기 쉽다. 따라서 봄배추 재배에는 내서성 강하고 생육일수가 짧은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유기질 비료의 효과적인 이용

유기질 비료가 주가 된 옛날의 농사를 보면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수량이 적을때가 많다. 사용한 유기질 비료의 비효가 낮았을 뿐 아니라 주어질 비료의 성분량이 부족 했을때도 많았던 것이다.

유기질 비료 중에는 분뇨나 깻묵과 같이 비료 성분의 함량이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비효가 빠른것도 있다. 이런 비료가 넉넉히 쓰일때는 유기질 비료만으로도 높은 수량을 올릴수 있으나 이런 유기질 비료를 대량 구하기는 쉽지 않고 또 구할수 있다하여도 값이 너무 비싸서 마음껏 쓸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화학비료의 연용으로 인한 작물의 품질

저하를 염려하여 어느정도 까지의 수량감소를 감수해 가면서 유기질 비료만으로, 혹은 유기질 비료 위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분들의 생각대로 화학비료 안쓰는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는 아래 몇가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인데다가 인산이 부족할 때가 많다. 한편 유기질 비료중에는 인산을 많이 함유하는 것이 적다. 깻묵과 계분외는 거의가 다 인산함량이 매우 낮은 물질이다. 한편 분뇨나 깻묵에 질소함량이 많고 그 질소가 효성이라 하더라도 화학비료와 같이 그렇게 많고 또 그렇게 속효성이지는 못하여 미리 썩히는 등 사전처리를 해야 한다.

유기질 비료 위주로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화학비료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가 혹시 유독성분을 함유할지도 모르는 황산이나 염산이 비료에 직접 함유되거나 이들 산이 제조공정에 쓰이기 때문인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자연석인 인광석을 그대로, 또는 이것에 다른 자연석을 섞어서 높은 온도로 녹였다가 급성하여 가루로 만든 소성인비나 용성인비 등은 안전한 비료가 될수있다. 소성인비나 용성인비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유하여 토양 산성을 중화하고 유기질소의 유효화를 촉진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인산 비료는 유기질소의 지효성이란 결정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는 것이다.

퇴비나 녹비를 위주로 할때는 물론이고 깻묵이나 분뇨를 사용할때도 질소부족으로 수량이 떨어지는 일이 많다.

소성인비나 용성인비를 사용하는 외에 요소로 부족질소를 좀 보완하는 고려는 유기질비료 농사에서라도 있어야 할 일이다.

포도의 재식요령

포도는 다른 과수와 함께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나 양토가 알맞다. 경사가

15도 이상인 경우는 토양의 유실이 심하므로 계단식 개원을 하여야 한다. 내한성이 약하여 겨울에 묻어 주어야 할 구라파 계통의 재배종은 토심이 깊은 사질양토가 적합하다.

포도묘는 삼목한 자근묘(自根苗)와 접목한 타근묘(他根苗)가 있다. 자근묘는 거의 피록세라에 저항성이 없고 토양적응력이 약하므로 저항성 대목에 접목한 묘목을 심는 것이 좋다. 저항성 대목에는 3309와 3306이 많이 쓰인다.

재배품종은 그지방의 시장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하며 양조용은 당함량이 높고 내한성이 강하며 재배용이한 품종을 심어야 한다. 양조겸용종으로는 마스캇트 베리 A, 세레단 등이 좋다.

재식거리는 일반적으로 구라파 계통의 세력이 강한 품종은 넓게 심는다. 울타리식 재배보다 평덕식 재배때도 넓게 심는다. 척박한 땅보다 비옥한 곳에서는 넓게 심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웨이크만 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하는 한 재래식거리는 다음과 같다.

(원에서시험장)

품 종	10a 당 재식 거리 및 주수			
	비 율 지		척 박 지	
	재식거리	주수	재식거리	주수
캠벨어리	7.2×2.7m	50	3.6×2.7m	100
"	7.2×7.2	18	6.3×6.3	24
테라웨어	9.0×9.0	12	7.2×7.2	18

구덩이는 폭 1m, 깊이 60cm정도로 판다.

잘 썩은 퇴비, 표토의 흙, 인산질 비료를 혼합하여 다시 구덩이를 매운다.

묘목은 신초의 마디 3~4절에서 절단하고 뿌리를 사방으로 펼친 다음 표토의 흙으로 덮는다. 묘목의 상단부 눈이 지면으로 나오게 심는데 싹트기 전까지 눈을 가릴 정도로 흙을 덮고 이흙이 마르지 않게 한다. 싹이 나오면 튼튼한것 하나만 지주를 세워 기른다.

오미자(五味子)의 비배 관리

목련과에 속하는 오미자나무(Schizandra Chinesis Baillon)의 잘익은 열매를 가을철에 따서 말린 것이다.

수령선직해약으로 발열, 오한등이 있으면서 기침, 구갈, 설사등을 일으키는 증상에 쓰인다. 또한 급성기관지염, 폐염, 늑막염, 천식, 백일해, 급성신염, 요독증, 위산과다, 습진, 안질 등에도 응용한다.

주성분은 정유와 유기산이다.

오미자는 산에 자생하던것을 근래에 와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개간한 산이나 밭 또는 울타리 옆 등에 심어도 잘 성장하며 사질양토가 가장 좋다.

번식은 파종법, 분근법과 삽목법이 있다. 씨로부터 묘목을 얻으려면 이른봄에 1m 내외의 두둑을 만들어 씨를 흐트려 뿌리고 흙을 얇게 덮고 짚을 위에 깔아주어 발아를 촉진시켜준다. 싹이나면 짚을 걷어내고 육묘하여 다음해 봄에

정식하여 재배한다. 종자 1ℓ에 묘상은 5평 정도가 소요된다. 분근법은 줄기밑에 뺨은 뿌리를 15~20cm 길이를 잘라서 심으며 삽목법은 장마때 줄기를 10~15cm를 잘라 모래에 꽂아 뿌리를 낸것을 이듬해 봄에 정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하여 얻은 묘목은 50~100cm간격으로 심고 덩굴지어 올라갈수 있게 지주를 세워주도록한다. 시비는 퇴비를 포기사이에 넣어주거나 복합비료를 성장함에 따라서 주고 제초를 하여 통풍이 잘되도록한다. 정식후 3~4년째 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

9~10월경에 열매가 붉게 익고 줄주름이 잡히기 시작할때 따서 햇볕에 펴서 말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남북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비교적 북부지방의 산중에서 자생하지만 생산량이 부족해서 가격도 싸고 수입할때도 있었다. 농촌에서 적당한 산지를 이용하여 재배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부업이라고 할수 있겠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는 남오미자(Kad-sura japonica)이다.

요즈음에는 우리나라 오미자를 일본, 홍콩, 말레이아, 태만 등에 수출한다.

國論이 하나되면

國土도 하나된다